

여름밤, 맥주와 블루스의 향연

익산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총력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20일 개막... 다양한 맥주 판매 · 세계적 블루스 음악 선사

여름밤, 군산이 수제맥주와 블루스 선율로 물든다.

'2025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6,000원으로 이중 5,000원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 관객들은 이 상품권을 이용해 행사장에서 맥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군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의 맥주 애호가와 블루스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산 보리맥아로 만든 '군산맥주'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교류 도시의 맥주 업체도 참가해 다양한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군산 수제맥주는 지난해보다 1,000원이 내린 1잔 4,000원에 특별 판매하기로 결정, 관객객들이 부담 없이 '군산맥



주'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축제의 백미인 블루스 공연 역시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일본의 Blues Company, 미국의 Joee Reyome, 그리고 국내의 김목경 밴드, 한상원

밴드,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와 한영애, 체리필터, 박완규밴드 등 국내외 16개 밴드가 출연해 깊이 있는 블루스의 매력과 락 음악도 선사한다.

최고의 밴드가 군산항의 밤바다를 배경으로 펼치는 블루스 선율은 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할 전망이다.

올 축제는 혜택도 풍성하다. 축제 기간 후원업체들이 제공하는 1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은 군산 고유의 맥주 문화와 세계적인 블루스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로 매년 많은 사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먹거리정책과 ☎ 063-454-525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가 여름철 시민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식품위생영업소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위생 수준 진단과 현장 지도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총 990여 개소를 점검했다.

아울러 오는 20일까지 위생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53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 7월에는 배달 전문음식점과 살모넬라 우려 음식점을, 8월에는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유치원과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식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배식 등 전 과정에 대한 위생 점검과 현장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점검 항목에는 조리기구의 교차오염 방지 여부, 개인위생 상태, 조리 환경의 청결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품취급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구분 사용하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여름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폭염이 계속되면 식재료의 부패 속도도 빨라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학교 급식과 외식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독립 의병 임병찬 장군 · 의병 35인 추모... '충혼제' 개최

오늘 군산문화원 마당서

군산 출신의 항일의병장 임병찬(林炳燾, 1851~1916) 장군과 의병 35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민족정신의 기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충혼제가 열린다.

18일 오전 10시, 군산문화원 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군산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마련됐다.

조선 말기 유생이었던 임병찬 장군은 군산 출신의 대표적인 의병 인사



로, 대한제국 시기 전라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항일 활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특히 국권 상실 이후에도 끝까지 자주독립의 의지를 굽히지 않

았으며,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펼친 바 있다.

이번 충혼제에서는 임병찬 장군뿐만 아니라 군산 곳곳에서 항일투쟁에 참여했던 의병 35인의 넋도 함께 기리는 추모 제례도 진행된다. 행사는 분향과 헌화, 추모사, 의병 활동을 기리는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혼제를 통해 군산이 간직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며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친환경 · 스마트 조선산업 이끌 인력 양성

군산시, 조선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 실시... 25일 개강

군산시가 친환경 · 스마트 조선산업을 선도할 '조선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조선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취업 연계까지 추진하여 지역 조선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세계 조선산업 시장은 △세계적인 산업의 환경 변화 △기술 혁신으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자동화 · 로봇화 등 첨단 기술 도입 가속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뛰어난 전문 기술 인력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특수용접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세부적으로는 △ABS(미국선급협회)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고 기술 습득 심화 과정 △조선산업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할 자동화 설비, 조선 설비 설계응용 △설계 조립과정을 신설했다.

이중 특수용접 심화 과정은 25일 개강하며, ABS 선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국제 표준 품질에 부합하는 용접 기술과 FCAW(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 인증 취득을 위한 고효율 용접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조선산업 자동화 설비 과정의 경우는 설비 공정 프로그램 설계 및 제어 기술 등 자동화 설비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설계응용 및 조립 교육은 CAD/CAM을 활용한 2D 도면 작성과 3D 형상 모델링을 통한 조립 등 디지털 기술교육에 집중하게 된다. 이 과정은 직업계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발해 빠른 신규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선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 교육은 전북인력개발원(군산시 동장산로 119, 소룡동)에서 진행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에겐 교육비와 실습재료, 교재, 중식, 통학버스가 무료로 지원되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2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인력개발원 누리집(<https://jb.korcham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북인력개발원(063-472-2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시, 유관기관과 함께 사례관리 협력 기반 다져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 사례관리 연계 · 통합지원 기반 구축

익산시가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통합 사례관리 강화에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췄다.

익산시는 17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관리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적

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상호 이해와 실무 연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역할과 사례관리 대상자 연계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기관 간 실질적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촘촘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유관기

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체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기관 간 사례관리 연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협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통합적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의회, 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동의안 심사 부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으나, 그동안 인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 352.22㎡ 규모로 어린이집 공간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

그러나 익산시가 별도의 시청 내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과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마비,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같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협의, 검증,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안전을 상정했다고 지적하면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로 안전 위해

과적 차량 연중 단속

익산시는 도로 시설물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과적 차량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 높이 4.0m ·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시는 이동 단속반을 운영해 과적 차량 운행이 잦거나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계측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무소, 익산경찰서 등과 함께 분기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